

매스미디어와 정치: 평화의 원천인가, 갈등의 원천인가

이 창 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수연구원)

| 요약 |

이 글은 언론이 전쟁과 테러 같은 사회적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함으로써 언론이 갈등의 해결이나 조정에 나서기보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보도하면서 미 언론은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애국주의적 보도태도를 보였다. 즉 위기 시에 언론은 국민 대중을 국기주위로 결집시키고 위기를 처리하는 정부정책과 결정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언론 본연의 사명이 정부 결정과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감시견 역할을 고려하면 위기 시의 언론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이다. 또한 언론의 지나친 자민족중심주의적 보도도 갈등과 위기를 증폭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저널리스트들이 그들 나라의 궁극적 이해에 기초해 국제 뉴스를 선택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민족중심주의는 전쟁보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걸프전뿐 아니라 이라크전쟁에서 미 언론은 폭격으로 인한 민간시설의 파괴나 이라크군과 민간인 희생자를 거의 보도하지 않고 미군의 용감성과 전쟁에 사용된 신무기의 위력을 소개하는데 바빴다. 쿠웨이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아랍 국가가 전쟁에 반대하면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이라크 위기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의 혁신적인 양상이었던 임베

드 프로그램도 결국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미군의 군사적 전략의 일환이었고 미 연합군에 동승 취재했던 종군기자들은 전쟁의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연합군의 교전과정과 기자들과 동고동락했던 군인들의 애환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라크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테러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인들 스스로가 자민족 중심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상황을 보다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정부의 정책과 결정을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2001년 수 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이후 지구촌 사회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흥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8월말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의 이슬람 시아파 성지 순례자들이 강을 건너던 중 테러범이 다리를 장악했다는 소문에 우왕좌왕 하면서 700여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무고한 민간인을 목표로 하는 테러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언론은 지나치게 테러 위협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듯이 보인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언론은 테러위협과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조했지 테러가 발생한 원인을 비교적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3월 20일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의 목표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고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권력으로부터 축출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하원의 압도적 지지와 국민적 지지 속에 전쟁은 수행됐고 미 주류 언론은 전쟁의 정당성을 문제 삼기보다 부시 행정부의 전략을 선전하는데 바빴다. 당시 많은 국가들은 전쟁

수단보다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책이 이라크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임을 강조한 바 있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정부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했고 전쟁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걸프 연안의 불안정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언론은 테러나 전쟁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보도할 때 갈등의 근원을 파헤치기보다 갈등의 양상과 과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언론 보도는 평화롭고 외교적인 갈등 해결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논문은 9.11 테러와 걸프전, 이라크전쟁과 같은 국제적 갈등과 위기에 나타난 언론 보도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언론이 갈등의 해결이나 조정애 나서기보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II. 전쟁과 언론보도

1. 이라크전쟁과 언론보도

1) 언론의 군사화

2003년 3월 20일 발생한 이라크 전쟁에서 종군기자(embedded journalists)의 역할을 어떻게 볼 지는 주요 논쟁거리였다.¹⁾ 연합군 병

1) 이창호, 『전쟁저널리즘: 이라크전쟁은 어떻게 보도되었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p. 68-70.

력에 동승한 세계 각국의 저널리스트들은 바그다드 진격장면을 현장에서 상세히 소개했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과정도 생생하게 전달했다. 따라서 강렬한 모래바람을 뒤로하고 바그다드로 진격하는 장면을 연합군 탱크 앞에서 보도하고 여러 무기 성능들을 소개하며 군 장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리던 미국 방송기자들의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흔히 볼 수 있었다. 미 군사진영은 미군의 영웅적 노력을 보여주고 이라크의 강한 선전 노력에 대항하기 위해 보다 많은 기자들을 군대에 배속시키는 것이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위 종군 저널리즘(embedded journalism)은 전쟁 보도에 있어 저널리스트의 역할에 관해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스미스는 종군기자들이 카타르 도하의 프레스센터가 제공한 군사브리핑에 의존하지 않고 스토리를 직접 현장에서 전달한 것은 이 전략의 긍정적인 양상이라고 주장한다. 즉, 종군기자들은 군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보다 생생하게 군사적인 행동을 묘사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MSNBC 뉴스의 밥 아놀트(Bob Arnot)은 이러한 종군기자의 긍정적인 역할에 동의했다. 그는 종군기자들이 보낸 텔레비전 영상 때문에 시청자들 스스로가 이라크 저항이 얼마나 강하고 어떻게 미군대가 그들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 해병대에 배속된 NPR(National Public Radio) 특파원 존 버넷(John Burnett)은 이러한 경험 덕택에 그가 참호로부터 군인들의 용맹성과 용기를 묘사하는 놀랄만한 스토리를 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직접 현장에서 전쟁 상황을 취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군사 브리핑을 교정할 수 있고

장교들에 의해 파문될 뻔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임베드 프로그램의 이점이다.

그러나 종군기자들은 취재대상인 군인과 너무 밀접히 접촉돼 있어 객관성을 잃지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즉, 그들은 뉴스 정보원과 너무 근접해있기 때문에 미군의 대변인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영국 BBC와 독일 방송기자들은 임베드 프로그램(embed program)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뉴욕타임스와 알자지라는 종군기자를 보냈다. 리스는 이 프로그램은 저널리스트와 취재 대상 간의 강한 의존 관계를 초래한 일종의 통제 방식이었다고 주장한다.²⁾ 니라마라(Neelamalar)와 동료들은 종군기자의 보도는 저널리스트들이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감정적이고 심리적으로 군대에 종속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임베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³⁾

나는 내 자신이 군인들과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도 이해 할만하다. 당신이 수 주 동안 동일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그들의 꿈과 불행을 공유하고 그들의 아내와 여자친구를 알게 되면서 당신은 아주 친밀한 친구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당신은 그들의 희망과 꿈, 그들의 용기와 힘을 존경할 것이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2) Stephen D Reese, "Militarized Journalism: framing dissent in the Gulf Wars," in Stuart Allan and Barbie Zelizer eds., *Reporting War: Journalism in Wartime* (New York: Routledge, 2004).

3) Shahira Fahmy, and Thomas J Johnson, "How We Performed: Embedded Journalists'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s Covering the Iraq War,"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 82, No. 2 (2005).

고립된 당신은 그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세상의 조그마한 구석을 보기 시작한다.

비록 존 버넷이 종군기자보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했지만, 그에 이러한 경험은 한편으로 균형 있는 저널리즘의 대의에 복무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에 부합한 가장 잘못된 실험이었다. 그는 종군기자들이 폭격이 가해진 장소를 알아낼만한 교통수단과 아랍어 통역원이 부족해 미군의 현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결국, 군사적 목표물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무능력 때문에 미군을 찬양하는 일방적인 보도가 이뤄졌던 것이다. 그는 그가 만난 많은 장교들이 종군기자들을 사명감 있는 중립적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미군의 업적과 영예를 반영하는 도구로 바라봤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나라마라와 동료들이 지적하듯, 미군에 배속된 경험은 저널리스트들을 전쟁 상황에 훨씬 가까이 접근하도록 했을지 모르지만 전쟁의 큰 그림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했다. 결국 임베드 프로그램은 전쟁의 치우친 면을 제공했고 미국의 군사적 관점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실제로 미 제 3보병사단에 동승한 뉴욕타임스 종군기자의 보도도 이라크 희생자나 민간시설 파괴 등 전쟁의 참혹한 현황을 전달하기보다 미군의 전쟁노력과 전투과정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알자지라 방송의 한 종군 기자의 보도는 이라크 시민들이 전쟁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2003년 3월 27일 이라크 움 카스르(Umm Qasr) 지역 내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⁴⁾

4) Adel Iskandar, and Mohammed el-Nawawy, "Al-Jazeera and war coverage in

내가 움 카스르 지역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감정은 그들이 혼란스럽고 정확히 그들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땅에 서 있는지 몰랐다. 그것이 영국/미국 군대에 의해 통제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라크 체제의 통제 하에 놓여 있는지. 그들이 원한 것은 음식, 물, 어린아이들에게 줄 우유를 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전부였다.

알자지라 전쟁 특파원들은 아랍어를 구사할 줄 알고 이라크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서구 방송기자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이라크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다.

대체로 연합군에 동승해 활동했던 종군기자들의 보도내용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종군기자들의 보도와 많이 달랐다. 즉 전자는 이라크의 약한 모습, 도망가거나 항복하는 이라크인의 모습, 후세인 체제 붕괴 후의 이라크 시민들의 환호, 연합군과 이라크시민 간의 다정한 교감 등 전쟁을 성공적인 것으로 묘사했다. 반면 후자는 연합군 전쟁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 미국의도에 대한 불신,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미국에 대한 분노를 전달, 보다 부정적으로 전쟁을 묘사했다.

한편, 임베드 프로그램에 참여한 종군기자들은 대다수가 취재한 내용이 갈등의 좁은 측면을 보여줬다는데 동의했지만 10명중 8명꼴로 그들이 보도한 내용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Iraq: the media's quest for contextual objectivity," in Stuart Allan and Barbie Zelizer eds., *Reporting War: Journalism in Wartime* (New York: Routledge, 2004), p. 324.

79.6%는 이라크 전쟁을 보도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답했고 공정한 보도였다는데 동의한 기자들은 72.9%에 달했다. 하지만 단지 17.5%가 보도가 편향됐다고 응답했고 33.1%만이 스토리가 완전했다는데 동의했다. 응답자의 76.6%는 그들이 전한 이야기가 임베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취재활동을 벌였던 저널리스트의 보도와 달랐다는데 동의했다. 이처럼 미군과 동고동락한 종군기자들은 대체로 미 국방부가 추진한 임베드 프로그램에 대해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자들은 직업적 역할이나 규범이 전쟁보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고 전쟁에 대한 개인적 태도나 가치, 이라크 문화, 아랍어와 같은 요소들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구결과 젊고 경험이 적은 기자보다 풍부한 직업경험을 가진 기자들이 그들의 전쟁보도에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사실, 베트남 전쟁은 군사적 검열이 없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전쟁특파원들은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자유롭게 전쟁 상황을 취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1년 걸프전 때 언론은 보안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군대이동이나 군사작전을 다루는 기사를 좀처럼 보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군사리포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한 연합군의 정보국으로 보내졌고 보안에 민감한 내용들은 검열됐다. 또한 기자들은 장교들에 의해 호위를 받을 때야만 비로소 군대를 방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군사적 통제 때문에 언론은 전쟁정보를 군사브리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전쟁의 참상과 진실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도 미 국방부는 저널리스트들에게 전쟁뉴스를 검열하는 보도지침을 제공해 군대에 기자들을 배속시키는 전략이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언론검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낳았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각 종군기자가 서명한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군대의 강인함과 부상자 숫자, 포로로 잡힌 적군의 확인된 숫자, 전투행위에 대한 폭넓은 정보보도를 허용한다. 하지만 기자들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군대 움직임과 위치를 보도 할 수 없다.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미군의 신분은 가까운 혈육이 확인하지 않는 한 72시간 동안 보도되지 않고 지역사령관은 군사작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의 보도제한(embargo)을 부과할 수 있다.⁵⁾

이러한 보도지침 때문에 저널리스트들은 군사적 임무나 작전을 상세하게 소개하거나 전달할 수 없었다. 한 예로, Fox News 전쟁 특파원인 제랄도 리베라(Geraldo Rivera)는 전쟁생중계방송을 하면서 모래위에 지도를 그리며 군사작전을 설명했다는 이유로 소속된 군대에서 퇴출당했다. 결국, 미 국방부는 저널리스트들을 군대에 동승, 전쟁을 취재케 한 새로운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언론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언론은 점점 더 군사적 전략과 목적에 종속됐다.

2) 알자지라의 성장과 국제보도의 변화

CNN과 서구 뉴스 통신사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전쟁정보를 제3세계 국가에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아

5) *The New York Times*, March 23, 2003.

랍미디어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 있다.⁶⁾ 1991년 런던에 본부를 둔 중동방송센터(Middle East Broadcasting Center, MBC)가 첫 전파를 발사했고 이어 아랍라디오와 텔레비전 네트워크(Arab Radio and Television Network, ART), 알자지라방송, 그리고 레바논국제방송사(Lebanese Broadcast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LBCI)가 연이어 설립됐다. 학자들은 이러한 상업적 혹은 민간 아랍 위성 뉴스채널의 성장을 CNN 걸프전 보도가 아랍정부에 미친 영향과 미국에서 훈련된 새로운 아랍 저널리스트의 등장으로 돌렸다. 즉, 걸프전 때 보여준 CNN의 생생한 전투장면 보도와 국제적 뉴스 서비스는 아랍미디어 환경과 아랍 텔레비전 뉴스 포맷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아랍정부가 위성텔레비전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촉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에서 저널리즘 교육을 받은 아랍출신의 저널리스트들도 급격히 늘어났다. 아랍미디어의 성장은 또한 아랍 세계가 그들 자신의 목소리와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랍세계에서의 뉴미디어의 성장은 서구 미디어가 그동안 독점했던 정보체계를 우선 무너뜨렸다. 다시 말하면, 서구의 아랍세계로의 일방적인 정보전달은 아랍 위성뉴스 채널의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아랍세계에서 뉴 미디어가 인기를 끌게 된 이면에는 그동안 서구미디어와 아랍 정부기관지들이 아랍지역의 여러 이슈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데 대한 아랍인들의 불만 또한 반영돼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 때 알자지라 방송은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전정보

6) 이창호, 『전쟁저널리즘: 이라크전쟁은 어떻게 보도되었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p. 54-68.

도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미국언론이 연합군의 공격 장면을 주로 보도해 미 행정부의 정책을 선전하고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알자지라 방송은 파괴된 이라크 민간인 시설이나 처참한 미군의 모습 등을 보도하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쟁의 참상을 알렸다. 사실, 알자지라방송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의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96년 11월 1일 시작된 이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쿠르드족 문제나 여성차별 등 아랍사회의 여러 금기사항들을 과감하게 보도함으로써 아랍세계에서는 가장 많이 시청되는 뉴스 채널로 성장했다. 22개 아랍국가 출신의 350명 가량의 저널리스트가 활동 중이며 35개의 해외 지국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5천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뉴스 종사자들이 영국의 BBC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랍세계나 국제정치 보도는 객관성과 균형성으로 상징되는 서구의 저널리스트 규범과 가치를 따르고 있다. 이 방송은 아랍이 직면한 이슈를 심도 있고 열정적으로 보도하고 정부뿐 아니라 이에 맞서는 저항세력도 게스트로 참여시키며 세속주의(secularism)같은 금기 이슈들도 다룬다. 따라서 쿠르드 민족주의자들과 반대자들, 여성해방론자들과 전통주의자들, 아랍민족주의자와 지역 민족주의자, 그리고 인권이슈들이 토론에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과감하고 공격적인 보도는 사실 전통적인 아랍미디어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이번 이라크전쟁 때 10여명의 알자지라 전쟁 특파원들은 바그다드를 비롯 주요 이라크 도시에서 활약했고 이들의 전쟁취재는 서구 미디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미국 네트워크 텔레비전도 알자지라에 의해 보도된 전쟁 장면들을 방송했다. 한편 알자지라는 미 국방부가 추진한 중군 프로그램(embed program)에 동참, 기자를 미 해병대에

파견하기도 했다. 이라크전쟁 발발 후 얼마 되지 않아 알자지라방송의 웹사이트가 한때 폐쇄되기도 했으나 최근 알자지라는 전세계 영어권 이용자들을 위해 영문 웹사이트를 서비스하고 있다. 아랍세계에서도 뉴미디어 이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알자지라의 영향력은 아랍 내부와 외부에서 더욱 커질 전망이다.

2. 걸프전쟁과 언론보도

1) 반전 보도와 경제적 동기의 결여

1991년 발생한 걸프전은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를 일으켰던 국제적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군의 폭격과 이라크 군의 응사가 마치 오락게임처럼 CNN을 통해 전달되던 모습을 지켜봤다. 할린과 기틀린(Hallin & Gitlin)은 미국 네트워크 저녁뉴스, 지역 뉴스, 그리고 CNN의 걸프전 보도를 분석한 뒤 이들 미디어가 미국의 용맹성, 기술의 잠재성, 그리고 미군의 용감함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탱크, 비행기, 미사일, 그리고 미군 이미지가 대부분의 텔레비전 시간대를 차지했다. 특히, 지역 텔레비전은 노란리본을 달고 헌혈을 하거나 전쟁지지 가두행렬에 참여하는 활동을 방송함으로써 미군의 사기를 증진시켰다. 그러므로, 전쟁은 지역 커뮤니티의 단합을 축하하고 확인하는 의식(ritual)으로 묘사됐다. 반면, 언론은 반전시위행렬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리스와 브칼루(Reese & Buckalew)의 연구는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와 담론이 주류 언론 뉴스 보도에 왜 나타나지 않는지 분석했다. 그들은 갈등(conflict), 통제(control), 합의(consensus) 프레

임을 사용, 미국의 한 지역 텔레비전이 어떻게 반전시위나 요구를 무시했는지 분석했다. 즉, 미디어는 갈등프레임을 사용, 미군병사의 애국주의에 대비시켜 반전시위를 보도했고 통제프레임을 통해 이 시위를 현존하는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틀지었다. 따라서 반전시위 참가자들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와 같은 부류로 언론에 묘사됐다. 저널리스트들은 또한 커뮤니티 단합을 강조하기 위해 합의프레임을 사용했다. 결국 이러한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 언론은 반전목소리를 약하게 했고 미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데 이바지했던 것이다. 케드(Kaid)와 동료들에 따르면, 군사적 행동과 미 고위관리들의 논평이 워싱턴포스트, 런던타임스, 르몽드, 프랑크푸르트 알쯔마인짜이퉁, 그리고 아사히신문이 걸프전을 보도할 때 사용한 주제의 반을 차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쟁반대시위와 군사적 행동으로 초래된 민간인 사상자를 다루는 기사들은 전체 주제의 10% 미만을 차지했다.

한편 미국과 이라크 정부는 전쟁터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와 이미지들을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사담 후세인은 미디어를 그의 군사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고 만약 수 천 명의 미군 사상자를 낼 수 있다면 미국 가정으로 방송되는 사상자들의 모습을 통해 미 행정부가 전쟁을 조기에 끝내도록 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은 사상자수를 최소화하고 피비린내나지 않는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언론보도를 통제하려고 했다. 걸프전 분석에서, 쇼(Shaw)는 연합군정부가 군사적 캠페인뿐 아니라 텔레비전의 가상적 영역에서 이라크에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전쟁은 거의 피 흘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200명도 채 안 되는 연합군 병사가 죽었고 수만 아니 수십만에 이르는 이라크 군인들의 죽음은 화면에서 거의 모습을 감췄다. 이처럼 연합군의 선전은 폭격의 정확성에 대한 몇몇 주장이 후에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정보원에 대한 엄격한 통제 때문에 언론보도는 비교적 통일됐다.⁷⁾

따라서 연합군 공격에 의해 희생당한 이라크 군인과 민간인들은 서구 미디어의 초점을 거의 받지 못했다. 미 정부와 군사진영에 의해 통제된 상징과 수사 전략은 이 기간 동안에도 효과적인 선전도구로 사용됐다. 체니(Cheney)에 따르면, 군사 고위관계자들은 전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고 군대에 대한 지지를 미 정부의 전쟁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도록 했다. 군사적 공격에 대한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은 걸프전이 제2의 베트남전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가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선전메시지는 미국이 새로운 세계질서 확립을 위해 싸웠다는 것이다. 이 질서는 군사적 희생에 대한 합리화를 제공하기 위한 보편적 가치나 상징으로 기능했다. 프랭크(Frank)에 따르면, 두 선전이 걸프전을 지배했다. 첫째, 전쟁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매우 훈련된 엘리트 공화국수비대에 맞서 수행됐고 둘째, 이에 맞서기 위해 연합군은 역사적으로 최초인 하이테크 전자전쟁을 스마트 폭탄(smart bombs)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군사지휘관들은 군사적 목표물을 벗어났던 많은 폭격의 부정확함을 보여주

7) Martin Shaw, *Civil Society and Media in Global Crises: Representing Distant Violence* (New York: Pinter, 1996), p. 77.

는 것을 소홀히 했다. 또한 미 언론은 대외정책의 정당성이나 천문학적 전쟁비용을 문제 삼는 기사를 거의 신지 않았다. 특히, 걸프전의 경제적 동기는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이후, 쿠웨이트는 OPEC합의를 무시하고 석유생산량을 늘렸고 이는 석유가격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는 석유가격 하락을 우려,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미국은 전통적 동맹국인 사우디와 쿠웨이트의 석유 생산량을 통제함으로써 석유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했던 것이다. 또한 1970년 초부터 미국과 유럽은 중동지역투자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었고 걸프지역의 군수수요와 일부 귀족층의 화려한 삶의 스타일은 미국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줬다. 프랭크(Frank)가 지적 하듯, 걸프전의 가장 명백한 경제적 이유는 석유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 언론은 전쟁이 일어난 경제적, 역사적 배경과 전쟁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걸프전 이후 진행된 미국의 한 여론조사서 응답자의 단지 2%만이 쿠웨이트의 석유가격하락 시도가 이라크침공의 원인이 됐다고 답했다.

2) 국익과 전쟁보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걸프전 보도는 국익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미국언론과 마찬가지로 영국언론도 걸프전을 보도할 때 전쟁에 사용된 스마트 무기와 지상군을 전진시키는데 있어서 이 무기의 효율성을 강조했고 폭격으로 파괴된 이라크 민간인 시설은 무시했다. 또한 전쟁이 끝날 때 까지는 이라크 군인들의 사상자수에 대해서 거의 언급

하지 않았다. 전쟁 기간 영국에서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68%의 응답자들이 영국텔레비전 보도가 애국주의적이었다고 답했고 단지 2%만이 텔레비전뉴스보도가 전쟁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국미디어는 미국과의 오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동맹관계를 반영이라도 하듯 전쟁우호적인 프레임을 사용했다. 아랍 언론이 중동지역의 갈등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몇몇 연구들은 중동지역의 언론이 걸프전과 사담 후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모우라나, 비얼링, 그리고 툴리(Mowlana, Vierling, & Tully)는 이란,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신문사설 250개를 질적으로 분석했다. 그들에 따르면, 이란신문은 걸프위기의 평화로운 해결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이슬람 교리에 반하는 사담 후세인의 위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은 자국이익을 위해 중동지역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기반을 통제하려는 음모세력으로 규정됐고 특히 석유자원통제와 아랍통일성해체는 미국개입의 주요 목적으로 묘사됐다. 이란 언론에서 나타난 이러한 반(反)미, 반(反)후세인 보도경향은 모타므드-네자드, 바디, 그리고 모세니언-라드(Motamed-Nejad, Badii, & Mohsenian-Rad)의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이들은 이란의 주요 일간지 에텔라트(The Ettelaat)와 카이한(The Kayhan)이 어떻게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그에 따른 걸프전을 보도했는지 분석했다. 그들은 걸프전이 이란 저널리스트들에게 특별한 경우였다고 하며 이란-이라크전쟁,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1979년 일어난 이슬람혁명이 이슬람국가에 미친 영향을 그 이유로 들었다. 연구 결과, 반미, 반연합군을 다룬 이야기는 걸프전 때 보도된 전체 기사의 거의 반을 차지했고 반(反)이라크, 반(反)후세인을 다룬 이야기는 이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 때 나타난 전체 기사의 41.8%를 차지했다. 이들 신문들은 이란 뉴스통신사에 많이 의존했는데 뉴스통신사의 기사들은 주요 국제 뉴스통신사로부터 온 기사들을 대부분 번역한 것들이었다. 한편, 요르단 언론은 전쟁에 대한 강한 비판과 더불어 걸프위기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과 연관시켰는데 이는 팔레스타인난민으로 그 국가의 대부분의 인구가 채워져 있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사설들은 대부분 서구의 폭력문화와 석유자원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비판했다. 이란과 요르단의 신문 사설들이 대부분 반전 혹은 반미 입장을 견지한 반면 이집트 신문 사설은 정부 측을 지지하는 신문과 그렇지 않은 신문 간에 보도차이를 보였다. 전자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을 지지하고 연합군의 군사적 우월성을 강조한 반면 후자는 반전태도를 견지했다.

III. 테러와 언론보도

1979년 발생한 이란 미 대사관 인질극 사건, 1985년의 미 항공기 TWA Flight 847 공중 납치, 그리고 2001년 발생한 9.11 참사 등 테러 행위는 그 극적인 성격만큼이나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폭력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언론 보도는 보다 극적이고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테러 행위는 테러에 대한 공중의 공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일례로 9.11 테러 이후 행해진 여론조사에서 미국 대중은 테러를 미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고 많은 미국인들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테러행위가 미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

으로 느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러한 테러 행위를 보도할 때 테러가 일어난 사회적 혹은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많은 비난에 시달렸다. 테러를 다룬 대부분의 이야기는 단순히 테러 행위나 희생자를 묘사하는데 치우쳐 일화적(episodic)⁸⁾이었고 그 결과 테러의 원인이나 배경을 논의하는 분석적 프레이밍은 좀처럼 언론보도에 발견되지 않았다.

1. 9.11 테러

2001년 수 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는 그 규모와 피해 면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테러범들은 4대의 미 민간 항공기를 납치, 미국의 자존심이자 세계 무역의 심장부인 세계무역센터에 돌진해 쌍둥이 건물이 붕괴됐으며 미 국방부도 산산이 부서져 모두 6천 여 명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이 대형 테러 참사는 일본군의 진주만 대기습인 펄 하버(Pearl Harbor) 이후 미국에 가장 치명적인 공격으로 묘사됐다. 테러 후 곧바로 부시 행정부는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 공격의 주 혐의자로 지목했고 테러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한 군사 작전을 감행할 것을 맹세했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의 배후를 찾기 위해 테러리스트와 그들을 감싸고 있는 국가를 구별하지 않았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을 21세기의 첫 전쟁으로 정의하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8) 아이엔가에 따르면, 텔레비전 뉴스는 어떤 이슈를 일화적이거나 분석적인 관점에서 다루는데 전자는 구체적인 사례나 사건을 기술함으로써 그 이슈를 보도하고 후자는 보편적이거나 추상적인 맥락에서 이슈를 묘사하면서 그 이슈의 역사적인 배경과 해석적 분석을 강조한다.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9.11 테러를 전쟁 행위로 해석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강하다. 테러 행위는 가장 큰 건물의 토대를 뒤흔들 수 있지만 미국의 토대를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가장 악한 인간본성을 목격했다”며 “자유 그 자체가 정체불명의 겁쟁이들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놀라움을 전했다. 미 언론 역시 그들의 분노와 놀라움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표출했다.⁹⁾

- 공격당한 미국(*New York Times*)
- 전쟁 행위(*San Jose Mercury News*)
- 테러리스트 공격이 국가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Seattle Times*)
- 누가 이 짓을 했나?(*Akron Beacon Journal*)
- 치욕스런 날(*San Antonio Express News*)
- 오늘 우리는 악을 봤다(*Orlando Sentinel*)

이처럼 테러 행위는 미 정부 관료와 언론에 의해 악과 적으로 묘사됐다. 그렇다면 미 언론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이 같은 테러를 어떻게 보도했을까? 룰은 9.11 이후 뉴욕타임스 사설을 분석한 뒤 신화적 관점을 통해 네 주요 신화를 발견했다.

- 무고한 사람의 종말(the end of innocence)
- 희생자(victims)

9) Changho Lee, “Post, Times Highlight Government’s War Efforts,” *Newspaper Research Journal*, Vol. 24, No. 1 (Winter 2003), p. 190.

- 영웅(heroes)
- 불길한 미래(foreboding future)

물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무고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했고 테러 참사 이후 모든 것이 바뀐 세계에 대해 비탄에 젖었다. 이 신문은 희생자 신화를 전달 하면서 테러리스트에 대한 응징을 촉구했고 생존자들에 대한 지지를 북돋웠다. 또한 신문은 영웅신화를 만들어 영웅을 찬양했고 지도자들이 위기에 대처함에 따라 그들을 추켜세웠다.

마지막으로 타임스는 테러와의 전쟁을 동원하고 그 결과 다가올 고통과 희생을 보도하면서 불길한 미래를 경고했다.¹⁰⁾

맥체스니(McChesney)는 9.11 테러 후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에 비유하면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테러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호의적이고 민주적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가 자유와 부유한 생활 방식 때문에 미국을 증오하는 정신 나간 악한 테러리스트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했다. 그러므로 미국은 즉각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고 생존해 있는 테러범들의 위치를 파악해야하며 그들을 전멸시켜

10) Jack Lule, "Myth and Terror on the Editorial Page: The New York Times Responds to September 11, 2001,"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 79, No. 2 (2002), p. 286.

야 한다. 이어 미국은 세계적인 테러 망을 파괴하기 위한 장기간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¹¹⁾

이러한 보복과 전쟁 중심의 언론 보도는 미국이 추진한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를 예방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보복 행위가 다른 테러 행위와 마찬가지로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행위가 아닌지 심사숙고할 수 있는 토대를 빼앗아 갔다. 더구나 테러와의 전쟁이 미칠 잠재적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부시 대통령에게 이 세계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되짚어볼 문제다. 맥케스니는 특히 미 언론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캠페인을 통해 군산복합체를 공고히 함으로써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얻게 되는 강력한 이익에 대해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미국은 미소 냉전 때부터 추진해 온 군사력 지출과 증강을 다시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리(Lee)는 미국의 주요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어떻게 9.11 테러를 보도했는지 내용 분석했다. 테러 발생 후 한 달간 두 신문 1면에 나타난 기사를 분석한 뒤 저자는 미국 언론이 테러에 대한 보복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테러가 일어난 배경을 전달하는데 소홀했음을 발견했다.

11) Robert W. McChesney, "The US news media and World War III," *Journalism*, Vol.3, No.1 (2002), p. 16.

〈표 1〉 9.11 테러 주 토픽(단위: %)

주 토픽	두 신문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테러에 대한 보복	29.8	32.5	27.2
테러리스트 조사	13.5	8.3	18.4
테러가 경제에 미친 영향	11.4	13.3	9.6
보안 이슈	11.0	10.8	11.2
기타 토픽	8.6	9.2	8.0
테러 후유증	6.9	9.2	4.8
이슬람 국가들의 반응	5.7	4.2	7.2
희생자와 가족	4.1	5.0	3.2
애국주의	3.3	5.0	1.6
미 보안체계에 대한 비판	3.3	0.8	5.6
아랍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	1.2	1.7	0.8
테러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	1.2	0.0	2.4
계	100.0	100.0	100.0

출처: Changho Lee, "Post, Times Highlight Government's War Efforts," *Newspaper Research Journal*, Vol. 24, No. 1(Winter 2003), p. 195.

〈표 1〉에 나타나듯이, 두 신문에 나타난 가장 지배적인 주제는 테러에 대한 보복과 응징(29.8%)이었다. 이러한 보복은 테러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 지내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 준비로 현실화되었다. 9.11 테러 발생 며칠 뒤 부시 대통령은 35,000명의 예비군을 소집했고 미 의회는 테러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사력의 사용을 승인했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조직과 관련된 모든 자금줄을 봉쇄했다. 즉 9.11 테러를 배후조종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모든 이슬람 테러리스트 집단과 개인들에게 국제 금융 체계

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전 세계 은행에 대해 제재와 통제를 가했던 것이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많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은 주류 언론에 주로 보도됐다. 이러한 보복중심의 뉴스 프레임은 “미국이 수천명의 민간인 목숨을 앗아간 테러리스트에 의해 공격당했다. 따라서 미국은 그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해 있다. FBI와 CIA가 테러리스트와 그들의 네트워크를 조사하려는 노력(13.5%)은 두 신문에 보도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였다. 테러 공격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공항 등 공공시설에서의 보안강화 조치 또한 언론이 주목했던 주제였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는 미 사법당국이 테러리스트 혐의가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감금하고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그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 반면, 이슬람 국가들의 반응을 보도하는 기사와 아랍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두 신문의 주요 머리기사를 많이 차지하지 못했다. 특히 두 신문은 왜 테러 공격이 자행됐는지 충분히 보도하지 않았다. 단지 워싱턴 포스트가 일부 기사를 통해 오사마 빈 라덴이 왜 미국에 저항하는 성전(jihad)을 전개했는지 보도했다.

빈 라덴은 두 성전을 선언했다. 1996년 발표된 첫 번째 성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두 성지를 점령하고 있는 미군을 겨냥한 것이었다. 1991년 발생한 걸프전 이후 5천 여 명의 미군이 사우디에 주둔해 왔다. 두 성지는 메카와 메디나에 있는 이슬람교 성당이다. 1998년 그는 첫 번째 선언을 확대해 가능하다면 어떤 나라 어느 곳이든지 군인과 민간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과 그 동맹국 시민들을 살해할 것

을 명령했다.¹²⁾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미군 주둔은 빈 라덴에게 전달 수 없는 것이었다. <표1>에 드러나듯이 테러에 대처하지 못한 미국 보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는 3.3%에 불과했다. 뉴욕타임스에 비해 워싱턴 포스트가 미 보안체계 허술을 보다 날카롭게 제기했다. 대체로 이러한 결과들은 미국의 두 주요 일간지가 테러공격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보복 수단을 찾는데 급급한 나머지 테러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이고 역사적 원인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한 언론의 슬한 테러 보도에서도 드러났던 것으로 향후 언론은 테러행위를 보도할 때 그것을 무조건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의 요구나 주장 그리고 테러가 일어난 배경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2004년 10월 4일 주요 일간지들은 알 카에다 테러조직이 한국등에 대한 공격을 촉구한 것과 관련,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을 알리는 기사를 주요 면에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 시작 알카에다 테러비상”이란 제호를 1면 머리기사에 달면서 미 대사관 앞에서 장갑차를 동원해 경계를 서고 있는 경찰특공대원의 사진을 1면에 실었다. 동아일보 또한 “알카에다 테러위협 발등의 불”이란 제목으로 정부, 군, 경찰의 비상태세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두 신문은 테러위협과 정부대처에만 주목했지 테러위협이 발생한 배경을 다루는 데는

12)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20, 2001.

소홀했다. 우리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이 한국을 비롯한 파병국가들이 테러의 위협에 계속 시달리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때 파병문제를 다시 되짚어보거나 정부의 테러대처능력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다. 그나마 한겨레신문이 사실을 통해 자이툰부대의 파병을 결정한 정부나 국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부대를 철군할 것을 촉구했을 정도다.

2. 그 외 테러사건

사실, 테러리즘에 대한 규정은 테러 행위가 조직화되고 틀지어지는 제도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사회구조에 따라 다르다. 요컨대 팔레스타인 영토를 되찾기 위해 이스라엘군과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들은 그들 세계에서는 전사나 영웅으로 추앙받는 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로 취급된다. 위트볼스(Wittebols)는 테러리즘을 저항적 테러리즘(grievance terrorism)과 제도적 테러리즘(institutional terrorism)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권력에 맞서거나 사회 피해를 교정하려는 반정부적 테러(insurgent terrorism)로 정의되고 후자는 테러사용을 통해 기존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체로 미디어는 저항적 테러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비판적인 보도태도를 나타냈지만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주도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다소 침묵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미국이 테러에 연루된 정부의 후원자거나 지지자였을 경우 미 언론은 국가주도의 테러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비판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즉 미 언론은 미국정부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세력의 테러행위를 우호적인 관계

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테러행위보다도 더 적대적으로 보도했다. 위트볼스는 미 언론의 테러보도에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다음의 세 주제를 발견했다.

- 우리는 희생자이고 그들은 테러리스트다.
- 미국은 세계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 테러리즘은 객관적인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비합리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행한 일이다.

스튜터(Steuter)는 1986년 미 시사주간지 Time에 보도됐던 테러관련 사건들을 분석한 뒤 미디어가 정치권력과 의 공생적 관계 때문에 테러행위가 일어난 역사적이거나 사회적 맥락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테러리스트는 범죄 폭력배들과 동일시되었고 종종 서구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음모자들이 저지른 행위로 규정되곤 했다. 테러의 맥락을 제공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언론은 테러리스트를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인 존재로 묘사했던 것이다. 언론은 테러 행위에 놓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대의를 무시했고 테러리스트의 목적을 전달하는데 소홀했으며 테러 행위의 폭력성을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충실했다. 아이엔가(Iyengar)의 미 텔레비전 테러 보도(1981-1986년) 분석에 따르면, 74%의 뉴스 스토리가 테러 행위, 집단, 희생자나 사건을 단순히 전달하는 일화적인 보도로 구성됐고 단지 26%의 뉴스가 테러를 일반적인 정치적 문제로 논의하는 분석적 보도로 채워졌다. 앳워터와 그린(Atwater & Green)은 미국 방송이 1985년 발생한 TWA Flight 847 공중납치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분석했다. 당시 레바논

의 시아파(수니파와 함께 이슬람교를 양분하는 분파) 비행기 납치범들은 미국 민간 항공기를 공중 납치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붙잡은 모든 시아파인들을 석방할 것과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군사적 만행에 대한 국제적 비난 그리고 중동지역에서의 미국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이스라엘은 31명의 레바논 죄수들을 석방했다. 연구 결과 미 방송은 인질들과 그 친인척들을 지배적인 인물로 묘사했고 그들의 인터뷰 장면을 주로 내보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1979년 수 백명의 이란인들이 테헤란의 미 대사관에 난입하여 미 66명의 대사관 직원들과 미 시민들을 붙잡고 억류하면서 인질극을 벌인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1979년 이란 혁명 후 정권을 잡은 새로운 지도자 호메이니는 국민들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에 맞서 투쟁할 것을 촉구했고 이는 444일간의 인질극 위기로 치달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게 됐다. 라슨(Larson)에 따르면, 미 네트워크 텔레비전은 테헤란 미 대사관에 붙잡혀 있던 인질들과의 인터뷰와 그들의 귀환 소식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인질 가족들의 모습을 주로 방송했다. 특히 인질들이 그들 가족과 친구들과 다시 만나는 모습은 감정과 친밀함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텔레비전의 위력을 실감케 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뉴스는 이러한 인질극이 발생한 원인과 배경을 전달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브라운(Brown)은 테러리즘을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접근함으로써 1985년의 비행기 납치사건을 분석했다. 그는 테러 사건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야기하는 특별한 종류의 상징적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에 따르면, 당시 테러리스트의 대변인인 나비 베리(Nabih Berri)는 이스라엘에 감금된 시아파(Shiite)

죄수들 석방을 베이루트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석방과 맞트레이드 하는 것이 인질 위기를 해결하는 합리적 수단이라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뉴스 미디어를 활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미디어는 비행기 납치범들이 그들의 수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테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다. 베리를 대변인으로 활용함으로써 납치범들은 시아파 대의의 공감을 얻었고 이스라엘에 감금된 시아파가 풀려나야 한다는 그들 요구의 정당성을 획득했으며 중동에서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은 테러가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어 전달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였다.

카츠(Katz)의 미디어 이벤트 이론을 테러 사건에 적용하면서 웨이만(Weimann)은 1985년의 납치 사건을 미디어 이벤트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테러 사건은 희생자 뿐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로 묘사돼 폭력적이고 위험한 갈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테러는 민주주의를 실제로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됐고 이러한 테러에 맞서는 행위는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는 일로 인식됐다. 다른 미디어 이벤트처럼, 테러도 사회적 질서에 관한 긍정적 기능을 수행했는데 인질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기 위해 노란리본을 달거나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국기를 다는 행위는 민족 통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였다. 테러는 또한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통해 인간 불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백악관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강한 지도력을 발휘케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유지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IV. 결론

앞서 살핀 대로, 언론은 전쟁과 테러 같은 갈등과 위기를 보도할 때 문제의 원인을 파헤쳐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위기상황과 그에 따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블로치와 레만-윌지그(Bloch & Lehman-Wilzig)가 주장하듯이, 대체로 매스미디어는 위기 시에 정부 행위의 독립적인 감시견 역할을 하기보다 동원기능을 수행한다.¹³⁾ 즉 언론은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권력 집단을 옹호하는 교량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는 국민 대중을 국기주위로 결집시키고 위기를 처리하는 정부정책과 결정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낸다. 언론 본연의 사명이 정부 결정과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감시견 역할을 고려했다면 위기 시의 언론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이다.

언론의 지나친 자민족중심주의적 보도도 갈등과 위기를 증폭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저널리스트들이 그들 나라의 궁극적 이해에 기초해 국제 뉴스를 선택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민족 중심주의는 전쟁보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걸프전뿐 아니라 이라크전에서 미 언론은 폭격으로 인한 민간 시설의 파괴나 이라크군과 민간인 희생자를 거의 보도하지 않고 미군의 용감성과 전쟁에 사용된 신무기의 위력을 소개하는데 바빴다. 쿠웨

13) Yaeli Bloch, and S Lehman-Wilzig, "An Exploratory Model of Media-Government Relations in International Crises: U.S. Involvement in Bosnia 1992-1995," in Eytan Gilboa ed., *Media and Conflict* (New York: Transnational Publishers, 2002), p. 156.

이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아랍국가가 전쟁에 반대하면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이라크 위기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의 혁신적인 양상이었던 임베드 프로그램도 결국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미군의 군사적 전략의 일환이었고 미 연합군에 동승 취재했던 종군기자들은 전쟁의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연합군의 교전과정과 기사들과 동고동락했던 군인들의 애환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라크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테러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론인들 스스로가 자민족 중심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상황을 보다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정부의 정책과 결정을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때다.*

〈참고문헌〉

- 이창호, 『전쟁저널리즘: 이라크전쟁은 어떻게 보도되었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Bloch, Yaeli, and Lehman-Wilzig, S, “An Exploratory Model of Media-Government Relations in International Crises: U.S. Involvement in Bosnia 1992-1995,” in Gilboa, Eytan ed., *Media and Conflict* (New York: Transnational Publishers, 2002).
- Fahmy, Shahira, and Johnson, Thomas J., “How We Performed: Embedded Journalists’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s Covering the Iraq War,”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 82, No. 2 (2005).
- Iskandar, Adel, and el-Nawawy, Mohammed, “Al-Jazeera and war coverage in Iraq: the media’s quest for contextual objectivity,” in Allan, Stuart and Zelizer, Barbie eds., *Reporting War: Journalism in Wartime* (New York: Routledge, 2004).
- Lee, Changho, “Post, Times Highlight Government’s War Efforts,” *Newspaper Research Journal*, Vol. 24, No. 1 (Winter 2003).
- Lule, Jack, “Myth and Terror on the Editorial Page: The New York Times Responds to September 11, 2001,”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 79, No. 2 (2002).
- McChesney, Robert W., “The US news media and World War III,” *Journalism*, Vol.3, No.1 (2002).
- Reese, Stephen D, “Militarized Journalism: framing dissent in the Gulf Wars,” in Allan, Stuart and Zelizer, Barbie eds., *Reporting War: Journalism in Wartime* (New York: Routledge, 2004).
- Shaw, Martin, *Civil Society and Media in Global Crises: Representing Distant Violence* (New York: Pinter, 1996).

| Abstract |

Mass Media and Politics: Source of Peace or Source of Conflict

Lee, Chang-ho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analyzing how the press covers social conflicts such as terror and war, this paper will show that the mass media play a role not in solving or adjusting the crises but in inciting or intensifying them. The U.S. mainstream media showed patriotic attitude when they covered 9.11 terrorism and Iraqi War. They did not transmit sufficiently the cause of social conflicts. That is, they mobilized the public around the flag and supported highly the governmental policy and decision. This coverage ignores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press, considering that the important function of the press is to monitor power. Journalists' ethnocentric reporting is another important reason why the press intensify social conflicts. Many scholars have pointed out that journalists select and cover international news based on their ultimate national interests. Especially, this ethnocentric reporting has appeared often in war coverage. Not only in Gulf War but also in Iraq War, the U.S. media described in detail the bravery of U.S. soldiers and the functions of new weapons, ignoring the destruction of facility and Iraqi victims. Although almost all Arab states except Kuwait opposed to military solution and supported peaceful solution to Iraqi crisis, the U.S. government did not listen to their voices. Embed program, the most innovative aspect of this Iraq War, was the U.S. military strategy to control the press. Embedded journalists who covered war story in

army focused on describing combat situation and joys and sorrows of soldiers rather than drawing a big picture of war. Now Iraq War and terror threat go on. In this situation, journalists themselves should be free from their ethnocentric attitude and see the crises with more objective standpoint. In addition, they should monitor political power and decision more critically.